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무소속 난립에 현군수 독주 양상

(새정치연합 후보)

담양군수

■담양군수 후보

관록의 현직 군수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난립한 3명의 후보가 각계 약진에 나선 분위기다. 3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일부 존재하지만, 1대3의 구도 속에 각기 분산된 '3'이 '1'을 견제할만한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현직 군수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무소속 후보 간 연대가 모색됐지만, 후보 매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미지도 어렵게 됐다. 특히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관된 2명의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결과'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관전 포인트 및 쟁점·변수=담양읍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공모(53)씨는 새로운 변화를 지시했다. 현직 군수가 도의원 11년, 군수 8년 등 20년 가까이 담양군정을 주도했다는데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이 공씨의 주장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현직 군수의 '성과'를 언급했다. 정모(57)씨는 "지금 군수가 해놓은 것들로 담양이 국내외에 잘 알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맥, 친·인척이나 지인 등 인맥, 출신지 등이 복잡하게 얽힌 '농촌 선거'의 특성상 의견은 숨기고 있지만 표심은 이미 고조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남도 선관위가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더 고조되고 있다. 당초 담양군수 선거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정치인인 현직 최형식(58) 군수에, 기업가 출신 김영기(56) 후보, 고위 공직자 출신 유창중(60) 후보, 전남대 교수인 신동호(56) 후보 등 서로 확연히 다른 경력을 지닌 후보들이 군수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과 대척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최형식(58)	김영기(56)	유창중(60)	신동호(56)
경력	담양군수	광주전남새정치포럼 상임대표	전 담양부군수	전 전남대 수의과대학 학장
주요 공약	·소득 3만 달러 7만 자립도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2015 세계 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	·주민들이 잘 사는 담양 ·광주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작목반 강화 ·인구 10만 전국 10대 부자 기초지자체 ·문화와 어울린 품격 높은 관광산업 육성	·명품 유치원 육성 ·농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생태농촌 조성

단일화 실패 무소속 후보 매수 논란 터져 악재 검증된 일꾼론·변화 이끌 새 일꾼론 한판 대결

점에 서면서 지역 여론도 갈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의 합당 이후 최 군수가 후보자로 정해진 뒤 무소속 후보 간 연대에도 실패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담양 발전 책임자는 바로 '나'=최형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불미스러운 일로 군의 명예가 실추돼 자존심이 상한 군민들이 성숙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검증된 일꾼으로, 지금까지 써온 담양의 신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은 '소득 3만 달러 7만 자립도시'로 요약된다. ▲팔각, 한우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 신화 ▲2015 세계 대나무 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꼽았다.

김영기 무소속 후보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약은 ▲

광주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유창중 무소속 후보는 "경제군수, 농업군수가 돼 10년 안에 인구 10만, 전국 10대 부자 기초지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공약은 ▲10년 내 인구 10만 전국 10대 부자 기초지자체 ▲문화와 어울린 품격 높은 관광산업 육성 등이다.

신동호 무소속 후보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같은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담양에서 태어난 뒤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자녀 교육도 모두 담양에서 시켰다"며 '토박이론'을 강조했다. 그의 공약은 ▲명품 유치원 육성 ▲농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생태농촌 조성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現군수 대 前군수 팽팽한 접전

장성군수

장성은 현직 군수인 김양수(63)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전직 군수인 유두석(64) 무소속 후보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여론도 둘로 갈라진 채 어느 쪽도 완벽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4년 임기동안 별다른 과실 없이 군정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장년층 이상, 먼 지역 등에서는 현직 군수가 점수를 더 얻고 있다. 중년층 이하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전직 군수를 지지했다. 장성읍내 300여 m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실은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만큼 선거전 양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김 군수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김 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 의사를 밝혀 현재의 선거구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 및 쟁점·변수=민선 5기 군수인 김 후보와 민선 4기 군수 유 후보의 선거는 이번이 3번째에 해당된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를 시작한 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중도 하차한 뒤 2007년 치러진 재선거에서 유 후보의 부인인 이정(52) 전 군수가 4년 임기를 채웠다. 이후 지난 2010년 민선 5기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이 전 군수를 박빙의 차로 누르고 승리, 1승1패를 기록했다. 부인이 대리인 성격으로 선거에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와 유 후보의 대결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이번에는 유 후보가 직접 김 후보와 결전을 치른다는 점에서 지역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

의 비방전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당장 지난 23일 김 후보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 후보에게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또 퇴비공정 유치 등 일부 사업과 관련 군민 일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텍스기사 윤모(53)씨는 "다 이리저리 연결돼 있어 이야기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지역 내에 팽배하다"며 "아직까지는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을 아꼈다.

■장성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이름	김양수(63)	유두석(64)
경력	장성군수	전 장성군수
주요 공약	·농협 장성물류센터 완공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나노 산업단지 조성	·내 영천 국민임대아파트 3차 건설 추진 ·노인 목욕권 확대 지급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지역관료 출신-중앙관료 출신 3번째 맞대결 金군수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 막판 돌발 변수

◇장성 발전 책임자는 바로 '나'=이번 대결은 지역관료 출신과 중앙관료 출신의 대결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면사무소 직원을 시작으로 도청 국장까지 오른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농협 장성물류센터 완공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 3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또 500개 기업 유치, 인구 5만명 거주, 재정 규모 5000억원 등 '5·5·5 시대'를 약속하고 전남도공무원교육원, 유엔대 부설 '지속가능성 과학기술연구소' 등의 유치도 다짐했다.

김 후보는 "3년 반 동안 군정에만 집중한 뒤 뒤늦게 선거전에 나서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도란 같은 25개 공약으로 군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며 "장성의 미래를 위해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은 군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자신했

다. '정법' 이미지의 발굴과 전국화도 김 후보의 지적이다.

유 후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중앙 관료 출신이다. 민선 4기의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를 끌어들이며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민선 4기에서의 발전의 징후가 민선 5기를 거치면서 정체돼 버렸다"며 "중앙정부에 당당히 가서 예산을 받고 지역에서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대표공약은 ▲LH 영천국민임대아파트 3차 건설 추진 ▲노인건강 목욕권 확대 지급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 11개다. 4년 전 부인이 낙선한 뒤 부부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표밭을 다져 민심을 얻고 있다는 점도 유 후보의 장점이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1선거구 새정치-무소속 맞대결...무주공산 2선거구 3파전

도의원

두 곳의 전남도의원 선거구의 경우 한 곳은 현역의원이 의원직 사수에 나선 가운데 다른 곳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다. 특히 무주공산이 된 한 자리를 놓고 새롭게 도의원에 입성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다. 제1선거구(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

면, 월산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철홍 현역 도의원에 맞서 무소속 강승환 후보가 나섰다. 박 후보의 현역 프리미엄이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제2선거구(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정철 후보, 무소속 김진호 후보, 구상규 후보 등 3명이 뛰어들었다. 담양군의회의 의장을 지낸 전 후보가 조직

■담양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	박철홍(53·민·전남도의원)
선거구	강승환(65·무·청주대학교병원장) 대표
제2	전정철(56·민·전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구	김진호(56·무·고서면 의용소방대장)
	구상규(61·무·전 국회의원 비서)

*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력에서 조금 앞선 가운데 김·구 후보가 뒤쫓고 있다.

1·2선거구 모두 무투표 당선...윤시석 3선, 이준호 재선

도의원

장성군 도의원 선거는 2곳 모두 무투표 당선지역이다. 현역 도의원들이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단독 입후보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3선과 재선 고지를 선점하면서 이후 행보에 주목을 받게 됐다.

장성군 제1선거구(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에는 윤시석(53) 후보가, 제2선거구(진원면, 남면, 동하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에는 이준호(45) 후보가 각각 나섰다. 윤 후보는 장성군의회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내리 3선에 당선됐고, 이 후보는 지난 2011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가볍게 재선 가도를 달리게 됐다. 윤 후보는 "장성은 지금까지 3선 도의

■장성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윤시석(52·민·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이준호(45·민·전남도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원이 없는데 앞으로 의정직에 도전,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저가 LTE 기본료

LTE29 요금제 출시

휴대폰은 최신 LTE 폰으로! 통신비는 국내 최저가 LTE 요금제로!

추천요금제

기본료 (VAT포함)
29,000원 (31,900원)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약정할인
60분	200건	500MB	6,000원 (6,600원)

최신단말기

Samsung GALAXY S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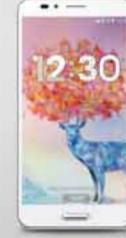
삼성 갤럭시 S5

LG G Pro2



LG G Pro2

VEGA 시크릿UP



베가 시크릿업

100% 가입 선물

티빙 실시간 TV 무제한 1년 이용권 100% 증정 (~2014.12.31 이전 가입고객 대상)

*"실시간 TV 무제한 이용권"은 모바일+PC+태블릿에서 180개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티빙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1등 알뜰폰 헬로모바일

www.cjhellomobile.com

가입문의 1855-4949